MULTI ASSET STRATEGY

2026. 1. 20.

글로벌 투자전략팀

유승민 Chief strategist
strategist.you@samsung.com

이지혜 RA
jhye53.lee@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그린란드 갈등에 대한 소고(I)

협상의 초입, 사태 악화 가능성 낮음

- 그린란드 합병 관련 갈등으로 미-유럽 관세전쟁 재개 우려 고조
-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美가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것은 불가
- 트럼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리더십 강화 목적이 더 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위협.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는 25%로 인상. 다만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

美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북극 안보에 중요. 막대한 천연 자원의 보고로서도 주목. 하지만,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합병 추진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큼.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제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美가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것은 불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 이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음[1].

이런 상황에서 NATO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린란드 합병 정책에 의회, 특히 상원의 지지 획득은 곤란. (의원들은 여론을 주시하고 있음. 한편, 당사가 美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

또한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면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2], 재정정책 결정권을 가진 하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음.

종국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IEEPA와 같이 향후 법적인 제약도 트럼프에게는 부담. 결국 과장된 발언들에도 불구 트럼프가 가진 카드는 많지 않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트럼프가 연초부터 첨예한 외교 갈등 이슈를 주도하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임.

따라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전까지 외교적 어젠다를 '선점'하겠지만, 정치적 행보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오히려 트럼프는 하반기로 갈수록 선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美와 유럽 그리고 덴마크는 결국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결과의 예측이 어려운 장기간의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현재는 그 초입. (현재로서 美가 그린란드를 장악하기보다 유럽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

따라서, 최근 높아지고 있는 그린란드 관련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파괴적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민감도도 제한적일 것.

[1] 로이터/입소소(1.12~13),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 17%가 찬성한다고 응답(공화당원 중에는 40% 찬성).
[2] 구체적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1천억~7천억 달러설 난무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